

해수부-부울경-지역 경제계, '해양수도권' 조성 위한 다자간 협력 착수

-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13일(목) 부산에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3개 지방정부를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함께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부·울·경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동남권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항만을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해양수도권 조성 및 기업 투자유치 공동 전략 수립·추진, ▲해양 및 해양연관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 제조AI 등 미래 성장산업 투자 기반 확충, ▲규제·제도개선, 지원방안 발굴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 ▲투자설명회 공동 개최 및 글로벌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공동 홍보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엔진 정책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항만과 물류인프라를 비롯해 주력 제조업, 에너지, 첨단 제조 및 우주항공 등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을 두루 갖추고 있는 동남권을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고, 지역 간 연계와 상생을 바탕으로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 투자 기반 확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출범한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방정부와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5월 국무회의에서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을 마련하였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계기로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동남권이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양수도권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해양수도조성과	책임자	과 장 최석준 (051-773-6330)
		담당자	팀 장 백승운 (051-773-6332)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진숙 (051-888-5270)
		담당자	팀 장 동세진 (051-888-5273)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책임자	과 장 박현식 (052-229-2960)
		담당자	팀 장 장윤정 (052-229-2971)
담당 부서	경상남도 신항만건설지원과	책임자	과 장 유승용 (055-211-4170)
		담당자	팀 장 김준호 (055-211-4172)
담당 부서	부산상공회의소	책임자	분 부 장 심재운 (051-990-7041)
		담당자	과 장 서주영 (051-990-7048)
담당 부서	울산상공회의소	책임자	분 부 장 엄영희 (052-228-3070)
		담당자	과 장 김현정 (052-228-3072)
담당 부서	창원상공회의소	책임자	팀 장 이승환 (055-210-3025)
		담당자	매 니 저 김태훈 (055-210-3021)